

전립선암 조기진단 중요...“가족력 발생위험 2.5배 이상”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가 8,000여명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와 고령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립선암을 방치할 경우 원격전이 일어나면서 말기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조기 진단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3만 3,646명(광주 9,905명·전남 2만 3,7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88명 ▲2018년 6,823명 ▲2019년 7,300명 ▲2020년 7,706명 ▲2021년 8,258명으로, 5년 사이 전립선암 진

광주·전남 5년새 33.4% 증가

작년 진료 인원 8천여명 넘어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 등 원인

초기 특이증상 없어 검진해야

료 인원은 33.4%(2,0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립선암 환자(전국 기준)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94.8%는 60대 이상이었다.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세 이상(26.2%), 60대(25.9%), 50대(4.6%), 40대(0.5%), 30대

(0.1%)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인구 10만명당 전립선암 진료인원은 44.5%(2017년 301명→2021년 435명)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80세 이상이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 3,508명, 60대 1,04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353억원에서 2021년 4,286억원으로 82.2%(1,933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광주의 경우 5년 사이 86.9%(614만원→1,148만원) 늘었고, 전남은 87.4%(1,243만원→2,33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샘세포의 암)을 말한

다.

전립선암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주로 유전 또는 감염 등 환경인자들이 오랜 시간 다단계의 발암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전립선암 중 약 10% 정도의 암이 유전적 성향을 보이며, 직계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1명일 경우 발생위험이 2.5배, 2명 5배, 3명 11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병 연령이 70대인 경우에는 상대위험도가 4배, 60대 5배, 50대 7배로 증가한다.

다른 암에 비해 진행속도가 비교적 늦고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초기 전립선암 환자는 특이 증상이 없고, 일반적인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 조기 검진을 하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도 초기 전립선암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립선암은 예방보다는 전립선특이항원(PSA)이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조기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영식 교수는 전립선 환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서구적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을 포함한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까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나 식품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임상연구를 통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약제나 식품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며 “전립선암은 예방보다는 조기 진단해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치과병원, 통합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진료정보 공유 협진체계 고도화

환자 안전·진료 편의 향상 기대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 차세대 통합병원정보시스템(e-SMART)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 모두 e-SMART가 구축돼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한 협진체계가 고도화 되는 것은 물론, 진료프로세스 표준화로 환자 안전과 진료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치과병원은 지난 1일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제고,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하는 e-SMART가 가동됐다.

이 시스템은 지난 1월 전남대병원에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4월엔 화순전남대병원이, 8월엔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오픈됐다.

e-SMART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 체제인 전남대병원이 본·분원간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AI와 접목한 빅데이터 연구 기반이 구축되고 환자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료 구현, 의생명 융합연구 등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환준 기자

또 본·분원간 모바일 전자의무기록(EMR), 환자안전관리솔루션(CLMA), 신속대응시스템(RRS) 등을 연동함으로써 스마트병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표준화된 프로세스, DB 등을 통해 진료 및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진료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다병원 체제인 만큼 원활한 진료정보 공유 환경을 구현하고 환자 안전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 초록우산 ‘백신 프로젝트’ 동참

한 달 간 교직원 104명 기부 참여

조선대병원이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SRB미디어그룹이 공동주최하는 ‘백신 프로젝트’ 나눔기업 인증식을 가졌다.

1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아동 복지를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백신 프로젝트’는 백원의 신나는 나눔의 줄임말로, 지역 아동들의 주거와 자립, 교육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100년의 토대를 닦는 기부캠페인이다.

인증식에는 김경중 병원장을 비롯해 박민수 총무부장, 김연 간호부장이 참석했으며, SRB미디어그룹 조덕선 회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현미 광주지역본부장, 유영태 광주지역 후

원회장 등이 함께했다.

조선대병원은 2년 전 ‘백신 프로젝트’ 첫 해 시즈1 84명 기부에 이어 시즈3에도 동참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부활동에 104명이 참여했다.

이번 후원에 동참한 조선대병원 교직원들은 “광주지역에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지역 아동들의 복지가 조금이나마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경중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이 ‘백신 프로젝트’에 참여를 통해 나눔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나라의 기둥이자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SRB미디어그룹이 공동주최하는 ‘백신 프로젝트’ 나눔기업 인증식을 가졌다. /조선대병원 제공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죽부센터
아케/팔꿈치센터
취주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원센터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광주금연지원센터**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SANGMU SU DENTAL CLINIC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www.kshosp.com

KS+ KS병원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